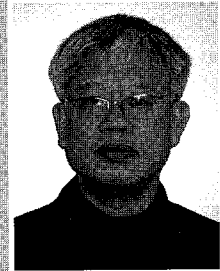


민통련 통일위원회 주최

통일문제 금요강좌 - 시작과 아쉬움



전 민통련 정책실 차장 김선택

1954년생, 서강대 졸업, 민청련, 전민련 사무차장, 민주주의 길 연결위원, 서강대 민주운동의 의장

문제가 일어나는 곳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곳도

모두 한반도이며 대상도 우리 민족이다.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내가 민통련의 정책실 차장으로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87년 대선이 끝난 이후이다. 당시는 대선패배와 관련,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 김대중 후보에 대한 비판적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방했다는 이유로 민통련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만약 민통련의 주장대로 비판적지지에 따라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겠지만 사정이 정반대이다 보니 민통련의 활동이 활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주장과 실천을 주도했던 선배 동지들은 거의 다 떠나고 문익환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창복 의장 그리고 몇몇 활동가들만 남아서 민족민주운동세력의 전국적 연합체로서 최소

한의 역할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왜소화된 종로3가 사무실을 마지막까지 지켰던 활동가들끼리 어지간히 술을 마셨고, 덕분에 서로의 믿음과 신뢰는 더욱 돈독해졌다. 그래서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당시를 돌아볼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좀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제대로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세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일들이다. 그러한 것 중의 하나가 민통련 통일위원회가 주최했던 '통일문제 금요강좌'이다. 올해가 을유년 해방과 동시에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진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보니 다른 어떤 활동보다 더 많이 기억나는지도 모르겠다.

1. 통일위원회 구성의 배경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 최초로 통일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목표로 통일위원회가 구성되었던 시기는 88년 올림픽 부근이었다.

당시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들뜬 분위기였던 데다가 북한의 참여하여 남북 동시입장 및 단일팀 구성 등이 이야기되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었다. 사실 이전 시기의 통일논의는 분단체제 속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세력이 자기 통치수단의 하나로 약용하기만 했었다. 그러나 남북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학생을 중심으로 사회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민족통일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극소수 학자들과 학생들이 중심이었고, 일반 대중은 물론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도 보편화되지 못했었다.

이런 척박한 시기에 민족민주운동세력 안에서 통일논의를 본격적으로 정리하고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1988년 2월경, 문익환 목사님의 강력한 제안과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민통련 산하에 통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문익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고 김병걸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고 박현채 교수, 김낙중 교수, 노중선 선생, 곽태영 선생 등이 위원이 되었다.

통일위원회는 우선 88올림픽을 계기로 전민족의 중대 관심사로 부각된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그때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던 통일에 대한 여러 논의를 수렴하여 그 결과물을 기초로 향후 통일운동의 방향 정립에 밑거름이 될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의 통일방안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몇 번에 걸친 논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통일방안에 대한

시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시 쟁점을 중심으로 통일위원회 위원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열어 통일운동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삼기로 하였다. 이는 이후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의 통일방안의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동시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논의들을 대중화하기 위함이었다.

강좌는 1988년 10월 7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종로3가 성당 강당에서 '통일문제 금요일강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2. 강좌의 내용

강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회부터 4회까지는 강좌를 둘로 나누어 첫째는 통일문제의 본질에 관한 것, 둘째는 올림픽 이후 통일문제를 둘러싼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5회째 강좌는 결론으로서 그때까지의 통일운동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1) 제 1주의 강좌

첫째 강좌 : "분단의 원인" (강만길 교수)

강만길 교수는 "이제까지 학계의 경향은 분단의 근본원인으로 우리 민족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고 미·소 양국의 분할점령과 점령지를 자기 세력권에 두려는 의도에서 찾아야 한다는 '외인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내부적인 데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내인론'에 대한 분석을 해 주었다.

둘째 강좌: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통일논의" (노중선 선생)

노중선 선생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그다지 우리 민족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민족통일을 위해 남·북한이 동시에 반민중적·반민족적·반민주적인 제 요인을 제거하여 보다 근원적이고 완결적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강생들의 질문

첫째 강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2개의 질문이 있었다. 미·일 전쟁의 과정에 대한 것과 김구와 김규식의 좌우합작과 건준이나 조선공산당의 조직적 기반과 통일전선론에 대한 비교에 관한 것이었다. 둘째 강좌에 대한 질문은 대표적으로 3개의 질문이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의 불가침선언이 실효성이 있나, 그리고 남·북이 같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의 내용에서의 차이점과 진척이 안 되는 점은 무엇인가, 또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2) 제 2주의 강좌

첫째 강좌 : “분단의 고착화 과정”(박현채 교수)

분단의 고착화 과정에 대해서는 민족경제론적 입장에서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와 단정에 따르는 대판적 정치권력의 형성, 그리고 민족통일전쟁으로 되었어야 했으며 또한 그러한 의도로 진행되었던 한국전쟁의 실패에 의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에의 편입, 외국자본의 운동을 가장 극단적 상황까지 가능하게 하는 종속적 경제구조 등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할 것은 “종속적 경제구조가 단순히 외부적 조건을 외부적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활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민족구성원들의 많은 부분을 이와 같은 종속적 경제구조에 얽어매으로써 반통일적인 것으로 만들게 하여 통일지향적인 것을 저해하는 내부적인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라 하였다.

둘째 강좌 : “올림픽 이후의 경제 전망”(박현채 교수)

올림픽 이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상호 입장을 달리하면서 얘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올림픽 이후의 경제는 나빠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예상이다. 물론 예상입니다.”라고 하였다.

수강생들의 질문

질문의 내용은 교수님의 강연 중 분단의 고착화가 주로 남한의 경제발전구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점과 통일의 구체적인 동력에 대한 물음이었다. 올림픽 이후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질문이 없었다. 질의응답이 13차례나 이루어질 정도로 열기가 있

있고 교수님께서 모든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해 주었다.

3) 제 3주의 강좌

첫째 강좌: “통일운동의 본질” (송건호 당시 한겨레신문사 대표)

우리 민족의 통일은 “남·북한의 40년 넘게 공고화된 기득권세력과 4대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의 총선거나 무력을 통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젊은이 특히 학생이 통일문제의 주역이 되어 3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강좌: “남·북국회회담의 전망”

이 강좌는 김종철 당시 한겨레논설위원이 맡기로 하였으나 강좌 계획 당시와 달리 남·북국회회담이 본 강좌가 시작될 시기에는 성사되지 못해서 김종철 논설위원과 상의하여 빼기로 하였다.

수강생들의 질문

한국에서 다시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과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 그리고 최근 학생들의 ‘북한바로알기운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본 강좌에서 자세히 답해주셨지만 뒤에 자료집을 낼 때 별도로 여러 가지를 보충해 주었다.

4) 제 4주의 강좌

첫째 강좌: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김낙중 교수)

통일방안은 무엇보다도 무력에 의한 것이 아닌 평화적인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평화통일 방안에는 “총선거에 의한 통일방안과 북합국가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국가연합 또는 연방국가 방안 같은 두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두 가지의 이러저러한 배합으로 통일방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제까지 제시된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해 소개하시면서 남·북간 현실적인 방안을 위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통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민족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민족자주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지배자가 아닌 민(民)들의 의사가 정치와 경제에 반영될 수 있는 민주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일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민중적

역량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강좌 : “최근 통일논의의 흐름” (민통련 정책실)

통일논의의 흐름을 당시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한국사회의 변혁이론의 발전과 연관시켜 살펴보았다. 특히 “80년 광주민중항쟁 이후 민중들의 정치적 의식이 비약적으로 높아졌고, 동시에 남한사회의 내부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확대되면서 북한이 남한사회의 변혁을 달성하는 데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통일문제가 일정한 상수가 아닌 주요 변수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이러한 통일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고, 다음으로 통일논의의 쟁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첫째, 주도세력과 정통성의 문제, 둘째, 남한사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변혁운동의 문제”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통일운동의 쟁점 중 둘째인 남한사회를 어떻게 변혁할 것인가에 따른 변혁운동론의 차이가 결국 어떠한 통일론으로 귀결되는가를 검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수강생들의 질문

첫째 강좌에 대한 질의 중 주요한 것으로 뽑은 것은 6개였다. 첫째, 주로 강좌 중에 주장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방안과 결부시켜 7·4남북공동성명의 내용에 대해 남한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북한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 둘째, 평화통일의 필수조건의 하나인 자주적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외세의존의 배경 및 민족자주적 조건보장의 구체적인 방법과 강성 외세의 이권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은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연사님의 저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청년들의 공동체 기관의 힘의 역할에 대해, 셋째, 연사님의 통일방안을 민중혁명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넷째, 미군철수와 그에 따라 우리 정치, 문화, 사회 전반에 걸친 미국의 영향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섯째,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남북의 정치·경제체제 그리고 정치권력이 민주적 자주적 민중적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남한과 북한의 정치·경제체제하에서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섯째, 어떻게 하면 민중의 힘을 키워서 지배세력으로서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등이었다. 둘째 강좌에 대한 질의는 강좌의 내용이 변혁운동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점도 있지만 첫째 강좌의 질의응답 시간이 길어졌고 일부는 첫째 강좌에 대한 질의 내용과 겹치는 관계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 제 5주의 강좌

첫째 강좌: “현 시기 통일운동의 과제” (이재오 당시 서울민중운동연합)

40년 넘게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의 통일은 단순히 정책이나 연구의 대상이 아니고 실천의 문제이자 우리들 삶의 문제라고 보고, 통일운동의 과제도 분단으로 인한 모든 피해가 민중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구조를 민중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당면과제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남북 상호간 통일논의 보장, 반통일적 법적 제도적 장치의 폐지, 남북 사회의 완전한 개방, 그리고 이것들의 제도화, 그리고 분단구조를 심화시키는 미군철수 등 반미지주화운동” 등이다.

둘째 강좌: “80년대 통일운동의 평가” (김근태 전 민청련 의장)

80년대 통일운동을 민족통일운동이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관점에서 어떤 위치를 가지는가는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특히 “88년 상반기에 학생운동에서 제기되고, 사회운동도 그 옆에서 같이 밀고 나갔던 조국통일촉진운동은 올림픽이라는 국제적으로 열린 공간의 특성이 한반도에 민족모순, 분단모순을 매우 첨예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제고했기 때문에 통일촉진운동이 의미 있게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것이 “원칙적 입장에서나 방법과 시기 선택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다.

수강생들의 질문

첫째 강좌에 대한 질의는 6가지로, 통일운동의 과제, 각 부문운동 특히 교육운동이 통일촉진운동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통일운동에서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와의 관련성, 분단모순과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관련성, 지주화운동과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의 관련성과 배합문제, 통일운동과 민중생존권운동과의 관련성과 구체적 양태 등에 관한 것이었다. 둘째 강좌에 대한 질의는 3가지였다. 첫째는 두 김씨 중 누군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당시는 노태우정부 시절)과 비교해 오늘날 민주화나 통일 등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리고 6·25에 대한 참 인식은 어때야 하나? 둘째는 각 부문운동 특히 교육운동이 통일촉진운동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셋째는 미군이 철수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분단구조에서 소련의 책임에 대한 것이었다.

3. 의의와 아쉬운 점

위와 같은 강좌 내용을 17년이 지난 지금에 살펴보면 일부는 상황 전개에 따라 시의 적절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현재도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면관계상 강좌를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주요 내용이나 가능한 한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소 길지만 요약해서 소개했다. 특히 분단의 근본원인과 고착화과정 그리고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등에 대한 강좌는 앞으로 계속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사적인 강좌나 80년대 통일운동의 과제와 평가는 현재의 입장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강좌마다 참가하신 분들의 적극적인 질의이라 생각한다.

그때까지만 해도 통일문제는 정부당국자의 전유물로서 일반인들은 전혀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88올림픽을 계기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6·10과 8·15 두 차례에 걸친 남북학생회담 추진 등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와 열기가 서서히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제까지 강고한 분단구조 속에서 억눌려오기만 했었던 통일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40년 이상 억눌러왔기 때문에 그 당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나 이해 정도가 초보적인 수준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강좌에 대한 광고도 제대로 못하고 한겨레신문에 조그만 강좌에 대한 광고와 금요강좌를 소개하는 기사를 통해 알린 것이 전부였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개최했던 최초의 통일문제 강좌(이후 여러 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강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었다.)였기 때문에 장소도 그리 크지 않은 종로3가 성당의 강당을 빌렸다.

그러나 우리 예상을 틀렸다. 참가하신 분들도 대단히 많았고, 질의의 내용도 상당히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신 분들도 많아서 질의하신 분들의 양해를 구해 질의 중 유사한 것들끼리 선별하여 묶어서 답하는 형태를 취했을 정도였다. 질의된 내용을 보면 얼마나 참여하신 분들의 열의와 수준이 높았는지, 강좌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질의 내용을 가능한 한 자세히 소개했다. 그에 대한 답도 다 소개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서 생략했다. 그렇지만 답변의 내용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았다.

첫째, 앞에서도 밝혔듯이 문익환 목사님의 강력한 제의로 민통련 산하에 조직된 통일위원회 본래의 목표는 민족민주운동세력 내의 통일방안을 수립하여 통일운동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일환으로 '통일문제 금요강좌'를 통하여 통일운동의 기반을 정립하고 나아가 통일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려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이 성과를 적극 수용·발전시켜 민족민주운동세력이 내세울 통일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러나 활동기간이 짧았고 민통련의 발전적 해소와 새로운 전국단위조직인 전민련의 출범으로 이런 계획은 계속되지 못했다. 또한 민통련의 활동이 그대로 전민련으로 계승되지도 못했었다. 다만 전민련 내부에 조국통일위원회를 두어 별도로 통일운동을 계속해 나갔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후 민족민주운동세력은 내부적으로 통일운동의 지표가 되는 통일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토론회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태에서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통일운동에 편승하게 됨에 따라 통일운동을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연관지어 소화시키지 못했다. 단지 그러한 편향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려 한쪽이 정통성을 내세워 다른 한쪽을 배제하려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그 결과 학생운동권의 통일운동에 대한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들이 사회운동으로 대거 편입되면서 그러한 편향성은 확대 재생산되어 갔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민족민주운동에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이후 올바른 통일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운동을 전개시키는 데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새겨보아야 할 점은 남한에서 일정하게 민주화운동이 성공되었어도 북한의 문제가 남한의 민주화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일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화의 성공도 일정하게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둘째, 금요강좌를 마치고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자료집을 내어 우편으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민통련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자료집을 책자로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강연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애매모호함과 논리적 비약을 줄이기 위해 연사분들께 강연 내용을 그대로 옮긴 테이프를 보내 이를 재검토하시도록 하고 다시 이를 원고로 받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었다. 늦게나마 당시 통일위원회 실무를 맡고 있었던 몇몇 활동가들이 재검

도된 강좌 내용과 답변을 모아서 책자로 도서출판 중원문화사를 통해 『통일론 강좌』(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통일위원회 편, 1989년 6월 25일 출판)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이 책에는 강좌내용과 답변 이외에 부록으로 박현채 교수의 '통일문제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관계'와 문익환 목사님의 '민족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 그리고 자료로 남북 당국자간에 맺은 합의서와 선언, 민통련 통일위원회의 통일위원들이 시안적 차원에서 작성한 '남·북한 통일안의 기본틀'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5.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올해는 을유년. 민통련이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이 해방되고 분단된 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민족 분단이 천지간이 서로 교차하여 한바퀴 돌아 제자리로 오는 동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씁쓸함도 동시에 교차하는 해이다.

사람도 60살이 되면 살만큼 살았다하여 축하해 주는 것이 관례이다. 그만큼 길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일체로부터의 해방, 이 해방이 주어진 해방이었기에 해방의 기쁨도 잠시 분단의 비극을 맛보아야만 했다. 그러고도 60년의 세월을 분단된 채 동쪽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비극은 긴 세월의 흐름만큼 분단의 구조가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올해는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해방 6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새롭게 통일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가 민주화가 달성되면서 과거와 달리 통일논의 모두를 정부가 독점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까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 또한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진척되어 왔다. 그리고 남한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시장개척과 생산기지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느 정도는 통일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북한 또한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경제제재 그리고 지속된 고립화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협소화 등으로 인해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급기야 심각한 수준의 식량난을 가져와 굶주린 어린이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도 한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긴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런 점들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계속하지 않

으면 안 되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탈북자문제에 따른 상황적 어려움, 이제까지 유지되고 있던 남북 당국자간 대화창구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외교적인 문제 등에 따라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특히, 핵문제는 남북 당사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간의 문제로서 남한의 입장에서 간여하는 것이 일정하게 제한적이다. 게다가 미국은 단순히 북의 핵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북의 김정일 체제를 문제삼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미국의 핵 해결에 대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극단적인 벼랑끝 외교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도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전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금기시되고 있는 자신들의 체제문제만 보장된다면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분간 통일문제를 교류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을 극단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도록 도와 주며, 나아가 북한 스스로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은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비용이 그만큼 적게 들게 됨으로 남한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게는 핵문제와 체제문제는 분리하여 핵문제는 핵문제로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고 체제문제는 북한의 자체 문제로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방법을 찾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남한의 경제규모에서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외국 자본과 대외 교역의 안정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에 따라 잃는 손실은 교류와 협력 그리고 식량원조에 드는 비용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여 미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동북공정의 목적이 여럿일 수 있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중국이 중화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내부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북한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는 않나? 라는 사실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가정이 가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휴전 당사자가 남한이 아님에 따라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남한의 국내법으로는 북한 지역이 한반도로서 한국의 영토라 주장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북

한 지역을 한국의 일부라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국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할 경우 동북공정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동북변방 지역에서의 우선권을 중국이 선점하려는 의도는 없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철수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외세의 배격이라는 측면에서 미군철수를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중국과 위와 같은 마찰이 생길 경우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미국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거점으로서 이 문제는 재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FTA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순히 반미니 숭미니 그리고 친중국이니 반중국이니 하면서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존을 지키면서 우리 민족끼리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 우리 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한 사회를 이룰 것인가를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핵심은 남과 북을 포함한 우리 민족 당사자이다. 문제의 성격상, 문제가 발생되었던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다를 수 있지만, 문제가 일어나는 곳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곳도 모두 한반도이며 대상도 우리 민족이다. 통일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든 현재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주의나 입장이 무엇이든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확신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렇게 슬기로운 지혜를 필요로 하는 시기에 민족민주운동을 주도적으로 했던 민통련 동지들은 20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이를 되새겼으면 한다. 이럴 때 과거 엄혹한 현실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하셨던 문익환 목사님이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언제나 균형각을 유지하셨던 분이셨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말 이쉽다.